교차로

보광불교대학 개설한

송보영 법사

"광범위한 불교사상을 쉽고도 체계적인 강의로 생활불교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심포교의 성공지역으로 부상되고 있는 서울 상계동 지역에 지난 20일 보광불교대학(노원구 상계2동 602-1 화일빌딩 602호)을 개원한 송보영법사의 다짐이다.

65년 학군3기로 임관해 30여년동안 군포교에 전력을 다해온 송법사는 지난해 10월 대령으로 전역하면서 불교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보광불교대학을 개설했다.

"지역불교 활성화에 주력"

노원역앞 화일 빌딩 6층에 자리한 보광불교대학은 불교근본교설, 불교경전이해, 불교와 현대사 등 기초교리와 한문, 국악 등의 교양강좌를 통해 불자들의 지혜를 넓혀주게된다.

"작은 불교대학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포교와 지역불자 단합을 도모할 생각입니다"라는 송법사는 군포교 경험을 살려 특히 거사불교의 활성화를 희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보영법사는 보광불교대학을 시민참선의 공간으로 사용, 참선지도도 병행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생활불교 신행불교 정착에 그 역할을 다 할 계획이다. 〈은〉

광명선원서 설법

월운스님(동국역경원장)은 오는 24일 방배동 광명선원 관음재일법회에 참석, '기도의 올바른 의미'라는 주제로 설법한다.

제주노인마을 설립계획

법성스님(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은 지난 13일 제주노인마을 후보지 물색차 제주를 방문했다. 스님은 현재 경기 가평 상면 봉수리 3만7천5백평 부지에 한국 최초의 노인복지마을인 성라노인마을을 건립중에 있다.

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철오스님(사천 구룡사 주지)은 지난 1일 경주 도투락원드에서 열린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됐다.

신년조찬 법회 열어

정법륜스님(인천불교연합회 회장)은 지난 17일 인천 송도비치호텔 무궁화홀에서 인천불교연합회 신년 조찬법회를 겸한 '국태민안과 국가 재해소멸'을 위한 기원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는 인천불교연합회 회원스님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 95년 인천지역의 불교활성화를 다짐했다.

기획실 홍보위원으로 위촉

제원스님(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난 4일자로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

성동구 사암연회장에 선출

법경스님(능인정사주지)는 지난 13일 개최된 성동구 불교사암연합회 신년교례회및 임시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스님은 올해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포교활동과 맑은 환경가꾸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정치학 박사학위 받아

최형우씨(전 내무부장관)는 오는 20일 동국대에서 내무행정 및 동국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작권 세미나 참석

윤청광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등국출판사 대표)은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저작권 국제세미나에 한국대표로 참석키 위해 지난 14일 출국.

'문학아카데미' 대표에

박제천씨(시인)는 최근 '문학아카데미' 신임대표에 선출됐다. 박씨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료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대문학상」「한국시인협회상」 등을 수상했다.

'나무위의 사람보다 …' 펴내

백영식씨(공군 군종감)은 그동안 설법 강의 투고의 글들을 모아 '나무위의 사람보다 땅위의 사람이 더 위태롭다'를 명성출판사에서 펴냈다.

과천서당 개원

박동춘씨는 지난 17일 과천 부림동에 초·중·고·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천자문, 소학, 명심보감등을 강의하는 한문서당을 개원했다.

◇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박서봉스님, 국회정각회 권익현회장등이 조계사 대웅전 신년하례에 참석했다.

종단협의회 주최 신년하례 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한 '신년하례법회'가 지난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23개 종단 대표와 권익현 국회정각회장 김태호 불교방송사장 안동일 재가연합 대표등 불교단체장 2백여명이 참석했다.

◇ 왼쪽부터 김재중 천도교교령 강원룡목사 주돈식 문체부장관 송월주스님 김근덕 성균관장 오녹원스님 한중환 민족종교협의회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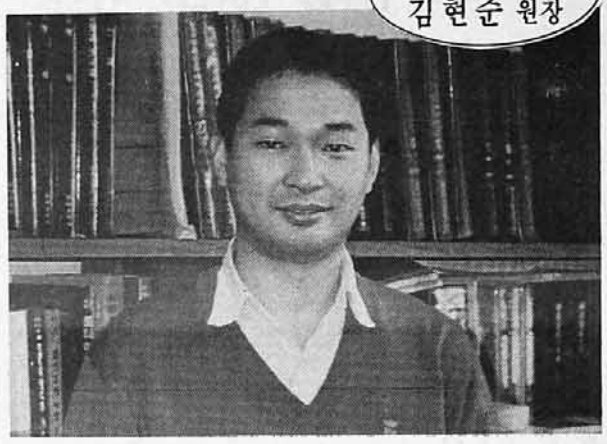
문체부 초청 종교지도자 새해 인사모임

문화체육부가 주최한 '종교지도자 새해 인사모임'이 지난 13일 국립중앙극장 대극장 로비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송월주 조계종총무원장, 박서봉 태고종총무원장을 비롯 불교계 스님과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등 각 종교지도자 2백여명이 참석했다.

'95 불교계 샛별 ★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



"불자가 불교 모를 때 안타까워요"

신행연구원 설립 … 좋은 인연운동 펴

아무져보이는 체구에 꾸밈없는 털털한 미소,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김현준씨의 첫인상이다.

깨달음의 숲이라는 뜻의 효림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최근 '불교신행연구원'을 설립하여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바르게 이끌어갈 불교신행문화운동을 시작했다.

"신·해·행·증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행입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실생활과 같이하는 연구를 불교신행연구원에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경북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한 그는 경북사대부고 시절부터 불교활동을 해온 신심 돈독한 정통파 불자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79년부터 12년간 〈한민족정신문화대백과사전〉의 불교부분을 맡아 연구했을 만큼 그의 불교에 대한 애정과 활동은 남달랐다.

김현준씨는 각 분야의 뜻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문화연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기도 했고, 도서출판 효림을 설립해 책을 통한 불교포교, 불교출판문화창달에도 한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사찰내에서의 예불, 기도, 참선등 불자들이 항상 행하면서도 그 행법과 의미는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해왔다는 그는 "일상속에서 무심히 흐른 대충대충 넘어가는 불교 신앙, 의례, 수행들의 깊은 의미를 불자들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음신앙, 지장신앙 등 각종신앙을 오늘날의 실생활에 맞게 역사적으로 정립해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연구와 가까운 곳의 어려운 이들을 돕기위한 좋은 인연 만들기 모임 활성화 등이 불교신행연구원이 펼쳐나갈 사업들이다. 이밖에 월 1회 불교문화기행, 신행을 위한 수련대회, 신앙, 의례, 수행에 대한 주제별 논문집 발간, 각종 동우회 운영 등을 통해 바른 신행문화를 사회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욕심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활동을 전개할것입니다."라는 그의 말이 믿음직스러움을 더하는 것은 넘치는 신심때문인것 같이 느껴졌다.

지난 91년 '사찰속에 깃든 의미'를 집필해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올해의 불서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는 "불교의 겉만을 알기 보다는 불교 속의 하나 하나 깊은 의미를 되새겨 짚어나가는 연구로 올바른 신행문화를 제시하겠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향한 믿음을 올바로 연구하고 생활속의 정법수행을 구현하는 문화운동전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은자 기자〉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 천수회

◇ 무연고 할머니들의 목욕뿐 아니라 외로움의 때까지도 씻어주고 있는 천수회 보살들.

자광원에서 자연스럽게 만난 주부 봉사모임

매주 무연고·장애인 할머니 정성껏 돌봐

"할머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어서 와,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은 안오는줄 알았잖아!"

서둘러 달려온 한 주부의 손을 꼭 잡으며 오랜동안 떠나보냈던 자식을 반기듯 눈물까지 글썽이는 어느 할머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성남 자광원으로 들어오는 길목엔 멀리서부터 이곳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며 걸음을 재촉하는 주부불자들이 하나 둘씩 들어선다.

연고가 없거나 신체장애가 있는 노인 70여명이 모여 사는 부처님 마을 자광원의 금요일은 자원봉사 주부 10여명이 이곳 할머니들을 찾아오는 날이어서 그 어느때보다도 생기가 돈다.

조계사에서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주부,멀리 잠실에서 자광원 사정을 듣고 달려온 주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키로 한 주부 등 이곳에 정기적으로 오는 주부들은 특별한 모임이나 단체의 회원이 아닌 각자의 뜻에 따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신심깊은 불자들이다.

그러나 어느덧 이들 자원봉사주부들은 언제부터인지 자신들을 천수회라고 부르게 되었다. 할머니들이 기거하는 천수실이라 이름붙여진 방에서 서로의 정을 나누며 따뜻한 사랑을 채워왔기 때문이다.

"할머니 오늘은 좋아 보이시네요. 목욕하신후 제가 얼굴에 영양크림 발라 드릴께요" 천수회 보살들은 할머니의 옷을 일일히 벗기는 것에서부터 목욕을 시켜드리고 새옷을 갈아 입히는 일까지 각각 분담해 정성스런 손놀림을 계속한다. 나이가 많거나 신체장애로 인해 손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주부들의 이마엔 금새 땀방울이 맺힌다.

그런 중에도 이들 천수회 보살들의 시선은 오늘도 어김없이 합장주를 돌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할머니에게로 모아진다.

"또 자식들 생각나세요? 이제 그만 우세요. 그러니까 건강이 자꾸 나빠지잖아요" 한달새 눈에 뭘 정도로 수척해졌다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으며 한 자원봉사주부가 눈물을 닦아준다.

할머니들을 씻겨 드린후 나온 빨래를 마치고 서로의 정을 나눈 것도 잠깐, 다시 자신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천수회 보살들은 서운해하는 할머니들에게 다음 주에도 꼭 오겠다는 약속을 하며 자광원을 나선다.

4년째 이곳에서 할머니들을 보살펴 오고 있다는 박희락성 보살은 "처음엔 할머니들의 변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으나 부처님 뜻을 따르는 공부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향기롭게 느껴졌다"며 이곳 할머니들이 항상 밝고 건강하길 지심으로 서원하고 있다는 따뜻함을 전했다.

〈성남 = 한명우 기자〉

게시판

▲설날 정초참배=천태종(총무원장 전운덕)은 2월1일부터 14일까지를 신년인사를 겸한 부처님 참배기간으로 정하고 신도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설할 계획이다.

▲출판인재 모집=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는 불교출판의 영역을 넓혀갈 젊은 인재를 찾고 있다. (02)732-2403

▲신입생 모집=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부설 보육교사 교육원에서는 1년과정의 9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개강은 3월10일. (02)921-9721

▲맑고향기롭게 스티커 보급=현대불교신문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일환으로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를 무료 보급하고 있다. 본사 1층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에서 보급하는 스티커는 차량용, 일반용 등 4종류. 또한 '여시아문'은 맑고 향기롭게 살기 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맑은 물찾기 실천을 위해 무공해 비누, 천연 주방용 세제 등을 판매하고 있다.

〈여시아문 (02)737-0695〉

1995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출가희망자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 (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2. 8 본교 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예정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차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5년 1월 27일까지
- 2차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5년 2월 23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511-1080, 511-2026·2027·2028, 조계사앞 삼보원:732-9904, 견지불교사:739-3032
부산영광도서:816-9500, 대구 제일서림:424-0801, 인천 대한서림:762-7337
광주 나라서적:222-2828, 대전 문경서적:252-8558, 수원 교학사:251-3928
마산 학문당:46-2925, 전주 홍지서점:88-5311, 청주 일선문고:53-2360
울산 세종서점:74-1265, 포항 학창서림:46-2120, 강릉 강릉서점:645-4373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511-1080, 511-2026·2027·2028)

삼 화 불 교 대 학 135-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FAX 511-1080